

법륜불자교수회 수련회 열려

법륜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는 12~13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제28차 수련회를 개최했다. 30여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법주사 율주 혜정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다졌다. 이날 혜정스님은 법문을 통해 "경전에는 욕망, 갈애, 집착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는 경전을 읽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수 불자들은 '법주사의 문화재와 가람탐방'을 주제로 한 지원스님(법주사 기획국장)의 특강을 통해 불상과 전각, 석등 등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성보임을 배웠다.



한국은행 불자회 정기법회

한국은행 불자회(회장 윤주화)는 11일 오후 한국은행 시청각실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묘주스님(동국대 강사)을 법사로 초빙한 이날 법회에서 19명의 행원 불자들은 연기를 주제로 한 스님의 강의를 들었다.

이날 <불경전입문>을 교재로 진행한 강연에서, "연기설(緣起說)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그 가르침의 실체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불자회는 올해부터 정우 묘주 스님과 김태영 백남수 법사를 번갈아 초청해, 매주 법회를 봉행한다.



월성원자력 반야회 신년법회

월성원자력 반야회(회장 유병태)는 15일 자체 법당 '반야선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50여 전력인 불자들은 월성원자력의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를 위해 월성원자력 반야회는 월례법회와 성지순례 외에도 지난해 7월 반야회 회원들의 타 지역 발령으로 수강생이 부족해 잠시 중단된 양남불교대학 강좌를 속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야회 회원들은 신입회원 중심으로 강좌를 새롭게 마련하고,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 방안을 만들었다.



“현장 실행분위기 고양 주력”

강평수 공정거래위 正佛會 회장

“지난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면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들의 활동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불회(正佛會)는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6일 올해의 실행을 서원하는 자리인 신년하례식을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불회 강평수(姜平秀) 회장(63·코레트신학 대표이사, 前 공정거래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부이사관·사건, 그는 우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실행 현장을 찾아 나서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불자들, 특히 공무원 불자들은 소극적인 불심을 가진 것 같아 안타깝다”는 정 회장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 종교는 마음을 맑게 하는 청량제와 같다”며 “회원들이 창립 때의 마음을 되새겨 법회와 교리공부 등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불회는 97년 5월 이남기 現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20여 부이사관 및 서기관 불자들이 모여 결성됐다. 강 회장 역시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 새벽예불을 10년 넘게 다니는 아내를 보고 발심, 기회 닿을 때마다 아내의 새벽길을 함께 나섰던 그에게,



실행단체 담당=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교리공부·큰스님 친견등 정례화”

초대 회장이라는 직함은 짐이 아닌 ‘불사’ 그 자체였다.

정 회장의 마음이 회원들에게도 전해진 탓인지, 정불회는 신심 하나만큼은 어느 불자회에도 뒤지지 않는 ‘정예부대’로 성장했다. 잦은 출장과 외근, 구조조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 등의 이유로 기가 꺾이기 쉬운 때에도 정불회 회원들은 똘똘 뭉쳐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도반이 됐다.

이는 강 회장의 끈끈한 도반애를 바탕으로

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게 강 회장의 포부다.

한편 이날 정오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정불회의 신년하례식에는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40여 회원이 모여, △과천청사 내 종교간 대화 △복지시설 위문방문 등을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불회는 창립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도법사로 도움을 주었던 김정호 법사의 투병을 돕기 위해 80만원의 성금도 전달했다.

“三毒心 버리고 고객에 서비스”

공인회계사 불자회 창립 초대회장에 박노영씨

한국공인회계사 불자회가 7일 오후 6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공인회계사 불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박노영 공인회계사(66·신한회계법인 부회장)가 회장, 전상구·이건·김길원 공인회계사들이 부회장으로 선출됐고 현 불교TV이사 손기연 씨가 총무로 선임됐다.

초대회장을 선출된 박노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말은 분야에서 삼독심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보살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우리세상은 불국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합회와 전문직 불자회와 연계해



△지난 7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전문직 불자회로서는 다섯번째로 ‘한국공인회계사 불자회’가 창립했다.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자”고 말했다.

불자회 회원은 40여명에 불과하지만, 공인회계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자회 결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불자회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공인회계사불자회는 향후 여타 관련 선단체와 연계된 실행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어, 전문직업인들의 실행을 활발히 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노영 회장은 “교리만을 공부해 입으로 불법을 말하는 불자가 아닌,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행을 활발히 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구성된 전문직불자회는 한국언론인불자회, 세무사불자회, 교수불자연합회, 병원불자연합회 등 회계사불자회를 포함한 총 5개 불자회에 이른다.

박노영 회장은 “교리만을 공부해 입으로 불법을 말하는 불자가 아닌,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한빛은행불자회 임원회의 부산 한빛은행불자회(회장 허명찬)는 12일 영주암에서 신년 간부 간담회를 열고 불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원 교육 방식의 변화, 인터넷을 활용한 부처님 말씀 생활화, 불교 관련 문화체험을 통한 신심 고양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올 한해에는 현재 42명의 기존 회원들과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산 경남 지역의 50개 한빛은행에서 근무하는 불자들에게 대한 포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허명찬 회장은 “회원들에게 법문이나 부처님 말씀을 이메일로 서비스하는 것은 물론 불교관련 영화, 그림 등을 관람하는 문화체험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 산악인련, 24일 총회

대한불교 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는 24일 오후 3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조직 정비 건 △삼각주회 신설 건 △지회 합동법회 건 등이 논의된다. 011-9739-9505

도시철도 법우회 봉원사 참배

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환)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봉원사에서 탕화 등을 둘러보는 ‘사찰 문화재 탐방’을 실시한다. 사찰순례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법우회 신입회원들은 사찰예절을 배우는 시간도 갖는다. 016-354-8801



철도 무사고기원 방생법회

철불협, 18개지부 300여 불자들 계룡산 감사 인근서 평 생명보시

생명보시를 통해 철도 무사고를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철도불교단체협의회(회장 정동진, 이하 철불협)는 12일 오후 2시 계룡산 감사 인근에서 ‘철도 무사고 기원 및 환경·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새해 첫 달에 철도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 달라는 순례대 철도청장의 부탁을 받은 철불협이 당초 9월로 예정하고 있던 ‘철도 무사고 기원 법회’를 앞당겨 마련한 것이다. 철불협은, 철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국가 유공자를 추모하고 무사고 안전 수송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점에 착안, 생생 방생으로 공덕을 쌓고 기원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자는 뜻에서 이날 행사를 방생 법회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철도청 분청 불자회, 구로 승무사무소, 부산 철도차량정비창, 익산 기관차 승무사무소, 서울 철도차량정비창, 대전 기관차승무사무소 등 전국 18개 지부 3백여 철도인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장곡스님(갑사주지)의 법문과 화엄스님(사나사주지)의 축원으로 철도 무사고를 기원하는 1부 기원법회와 철도인 불자들의 염불 정군과 함께 20여 마리의 평을 방생하는 2부 방생법회로 진행됐다.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 양성을 위한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학인으로 인연 맺어 일체 선근을 증장시킬 수 있도록 지도 교수합니다.

본 대학에서는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법사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2학년도 제11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적극 지원함
- 종단에 출가 득도시 수행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후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됨
- 교도소, 군법당 등에 포교활동을 적극 추천함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모집학반 :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의식)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의식)
 6. 교육장소 : ① 서울 본 대학 ② 부산 학승도량
 7.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8.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원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10-1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자동 110-1번지 (건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질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질현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넛치드 세라모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색현상이 좋아지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구입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 · 기미 :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췌장염처럼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린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사뭇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질현)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일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밤마다 고민해 있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매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일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맛이 건조하다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붉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빈번히 심한 편이다
- 18 당뇨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